

CONTENTS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동게스와리**
이제 양초로 불 밝힙니다 | 공선주
- 09 **살라맛, 민다나오**
민다나오의 JTS 농업기술센터, 건축허가 나다 | 최정연
- 13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농업개발협력 사업 | 김경희
- 16 **쭈리읍쑤어, 캄보디아**
모두에게 꿈과 희망인 학교 | 박주선

국내소식

- 18 **특집 어린이날 캠페인**
아시아어린이에게 학교를 | 편집부
아름다운 순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내 몫 한 게 참 좋아요 | 김여진
나의 특별했던 어린이날 캠페인 | 편집팀
- 24 **행복 나누는 사람**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다 | 노유정

특집기획

- 25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나눔회원소식

- 28 **인터뷰**
꿈을 현실로 - 로터리클럽 | 편집팀
- 31 **새나눔회원 한마디**
오늘 첫 만남입니다 | JTS
- 32 **활동터 소식**
국내 · 인도 · 캄보디아
- 36 **나눔회원 알리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 저금통 · 명단확인란

이제 양초로 불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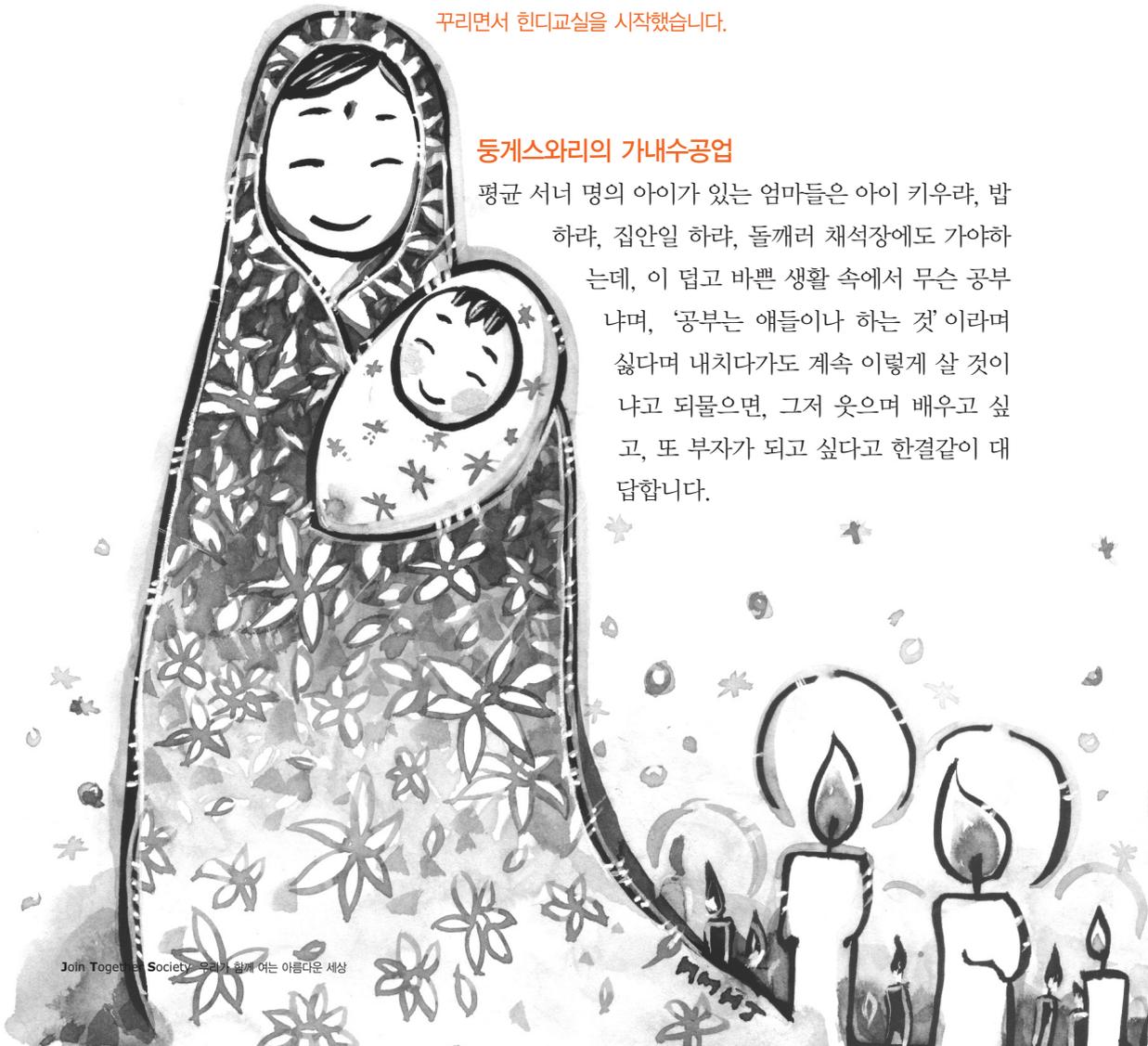
동게스와리 어머니회 힌디교실과 양초만들기

공선주 인도JTS 어머니회 담당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수동적인 동게스와리 여성들에게 문맹 극복과 경제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아자드비가, 안투비가, 가왈비가 이 세 마을에 어머니회를 꾸리면서 힌디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동게스와리의 가내수공업

평균 서너 명의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 키우랴, 밥 하랴, 집안일 하랴, 돌깨러 채석장에도 가야하는데, 이 덥고 바쁜 생활 속에서 무슨 공부냐며, '공부는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싫다며 내치다가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고 되물으면, 그저 웃으며 배우고 싶고, 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1,200여명 불가촉천민이 사는 버려진땅-등계스와리-에 자립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 건축 기술자가 되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JTS에서 쌀을 주면 공부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배우면 쌀 만드는 일을 가르쳐주겠으니 걱정 말고 일단 공부부터 시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날 번 돈으로 그날 살고 있어서 먹는 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하지 않으면 내일은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주일 미래, 1년의 미래는 머릿속에서 그려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더욱 돈벌이가 되는 일거리를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곳 등계스와리에서 가내수공업이라는 단어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힌디교실에서 몇 번 뜨개질을 가르쳐봤지만 너무 어려워하며 모양이 나오질 않고 영성해서 팔 수 없는 조끼와 목도리가 만들어졌고, 조금 기술이 필요한 일들은 이해 못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꼼꼼한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즐거운 양초만들기 수업

다행히도 가야의 한 기술교육센터에서 양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는데, 불가촉천민들에게는 무료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힌디어를 배우기 싫어하는 것처럼 양초 만들기도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지만, 돈 벌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모두들 큰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양초수업 강사는 산 너머의 가왈비가 마을에는 갈 수 없다고 해서 30-4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시작될 때, 가왈비가 어머니들 20여명은 1시간을 걸어 양초수업을 받으러 수자타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일찍 오겠다고 양초선생님은 결국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지만, 어머니들은 싱글벙글입니다.

양초수업 강사 가방에서 촘촘한 양초틀이 나오자 모두들 신기한 듯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옆구리에 끼고 온 어린 아가도 바닥에 내려놓고 선생님 설명에 따라 양초틀에 양초심지 끼우는 법을 배웁니다. 틀에 심지실만 위아래로 끼워 넣는 단순 작업이지만, 어머니들은 자신 없어 주저하고, 또 엉터리로 해놓기도 합니다. 몇몇 이해가 빠른 어머니들이 큰 소리쳐

양초주형 식히는 모습



선생님에게 천천히 설명들은 안투비가, 아자드비가 어머니들



양초틀에 심지를 끼우고 있는 가왈비가 수안데비



가며 다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안투비가 유치원에서는 안투비가 아자드비가 어머니들 40여명이 함께 모여 수업을 받았습니다. 야외 벽돌 화로를 만들어 지푸라기와 소똥을 태워 양초의 원료인 왁스를 녹이고, 구경차 놀러왔던 동네 꼬맹이들은 핸드펌프에서 물을 길러 양초틀을 식힐 물을 나릅니다. 여기저기서 뭐가 재미있는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힌디 공부할 때는 채석장으로, 집으로 데리러 가야 수업에 나오는데, 웬 일인지 이번에는 말하지 않아도 일찍부터 나와 앉아 힌디공부를 하며 양초수업을 기다립니다. 어머니회 멤버 40명 뿐 아니라 동네 할머니, 아줌마, 꼬마들까지 모두 모여들어 시장바닥을 이뤘습니다. '등게스와리 아줌마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늘 '어렵다..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면서 일도 열심히 안한다' 고만 치부해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당한 일거리가 없고, 또 남들처럼 그렇게 돈벌며 사는 세상살이를 모르고 등게스와리 바깥세상을 모르며 그저 이곳에서 낙천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난 내 기준으로만 바라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온동네의 관심거리가 되어

둘째 날, 집에 가서 저녁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쳐보라고 수업 시간에 만들은 양초를 1개씩 나누어주었습니다. 다음날은 모두 먼저 와서 실습해보겠다면서 일찍 나와서 날이 갈수록 수업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셋째, 넷째 날에는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채석장에서 돌깨던 남편들

스스로 만든 양초로 불 밝힌 가월비가 어머니들



양초만들기 수업에 참석한 안투비가, 아자드비가 어머니들



“어머니들은 이렇게 쉬운 일로 돈 벌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두 유치원으로 구경나왔습니다. 나이 든 어머니회 회원은 젊은 며느리들을 보내 배워오라고 했습니다. 시골 장터인지, 수업시간인지 모르게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지요.

힌디어교실에 가지말고 돌개서 돈벌이라고 때리는 남편도 ‘양초만들기는 아주 좋은 일’이라며 열심히 배우라고 격려해줬다고 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일이다’ ‘밤에 양초가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모두들 집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지지를 얻은 어머니들도 ‘이제 낮에 돌 깨러 안가고 이 일을 하겠다’ 합니다. 양초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 양초틀에 심지 끼우고, 왁스를 부어 식히기만 하면 되니 어머니들은 ‘이렇게 쉬운 일로 돈 벌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으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아기가 똥싸고 방해되니 남편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해서 가왈비가에서는 마지막 날 갓난아기 없이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벌면 가정에

서 더 이상 돈 버는 부인을 때리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이 작은 돈벌이가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초는 누가 팔아요?

어머니들은 얼른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 팔자고 조릅니다. 예쁜 모양이 아니면 팔수 없으니 잘 만들어야 한다고 겁을 주지만 모두들 예쁘게 잘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것이나고 물었습니다. 의견이 다소 분분했지만 ‘힌디어수업시간에 나와서 조를 짜서 서로 도와가며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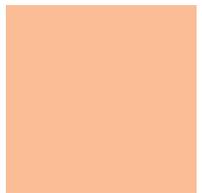
그럼,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누가 팔 것인가 물었습니다. “양초는 우리가 만들테니 시스터가 팔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 인도를 잘 모르고 힌디어도 잘 못하니 당신들이 팔아라” 하니 “우리는 양초와 그 틀을 어디서 사는지도 어디다 파는지도 몰라요. 파트나(한국의 도청 소재지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도 안 가봤어요.”하며 걱정을 늘어놓아 남편과 마을

잠간의 틀을 이용해 열심히
힌디어 공부중인 어머니들



양초만들기 수업받기 위해
안투비가로 걸어오는 아자드비가 어머니회



“ 천천히 그리고 스스로,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보고,
서로 도와 돈도 벌어보며 기뻐하기를 바라봅니다. ”

에 있는 가게주인들에게 알아보고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나타나자 어머니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남편도 모르고, 가게주인들도 모른다고 했다면 걱정합니다. 갑자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지, 정말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장바닥에 앉아파는 억척스러움도 모르는 이 순진한 사람들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스스로

지금은 모르지만 천천히 그리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팔아보고, 스스로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보고, 서로 도와 돈도 벌어보며 기뻐하기를 바라봅니다. 스스로 해보는 경험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게 되겠지요.

힌ديو실에서는 마을 이름도, 내 이름도 쓰고 입을 줄 모르고 숫자도 세지 못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냐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고 하니 모두들 의욕이 가득차서 내일부터 매일 공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인도의 큰 명절인 디파왈리푸자 때는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밝힙니다. 그때 양초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니, 우기가 끝나면 양초만들기를 시작해서 가을, 겨울에는 돈을 조금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수업을 마치고



민다나오의 JTS 농업기술센터, 건축허가 나다

최정연 필리핀JTS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 그리고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마닐라정토회 대표 이원주님과 이규초님의 민다나오 사업장 방문이 있었다. 파굼퐁 pagumpong, 블루안 buluan, 타푸난 tapunan, 키타스 kitas, 발라 balah 지역을 방문하고 다몰록 시장인 총코 (Tiongco)를 만나 사업 논의를 한 이 방문에는 민다나오JTS의 도동, 최정연, 미오, 리코 님이 함께 하였다.

6월초에는 JTS농업기술센터의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었다. 민다나오JTS는 이 기술센터를 이용하여 민다나오의 원주민과 무슬림 그리고 이주정착한 크리스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민다나오의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개발과 전통문화 및 자연을 보존, 발전시켜나아갈 구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필리핀 민다나오 전경





(위) 학교기초공사

(아래) JTS센터 기초공사

하나로 이루어진 바람 학교

사업장 중 파굼퐁과 불루안은 이미 레이아웃,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지붕 트라스를 만드는 중입니다. 4월초에 목재를 자르기 시작했고 5월 19일 마을 전통의식을 치르고 공사를 시작했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학교준공식을 치른 지역 사라와곤은 이 파굼퐁과 불루안에서 약 8~12km 떨어져있는데, 사라와곤에서 학교공사시 파굼퐁 마을과 불루안 마을청년들 (이 지역들은 모두 무슬림지역임)이 사라와곤 (무슬림, 크리스찬, 원주민 함께 사는 마을)마을에 모래와 자갈을 나르고 목재를 지원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마을에까지 와서 학교 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 이는 자신들의 마을에도 학교가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그 대단한 열정

이 마을들은 부키드논 주와 북 코타바토 주의 경계지역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난한 동네이고, 물도 귀하고 말라리아 발생 지역입니다. 이런 마을에서 작은 학교를 짓기 위해 자기 마을에서 10km 넘게 떨어진 곳을 오가며 자원봉사로 공사장일을 도와주는 것은 그 학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려줍니다.

제가 늘 말하는 아름다운 민다나오는 산이 푸르고 물이 많은 곳인데, 다물록 지역은 대부분이 구릉지역에 풀밭더미라 나무그늘과 맑은 물을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도 햇살은 뜨겁습니다. 그 햇살을 그대로 받으며 모래자갈을 나르고 공사장 일을 아무 댓가없이 도와주는 것은 이미 자기 마을에 학교가 있다는 꿈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강한 염원으로 공사

분쟁이 계속되는 섬, 민다나오 40여개 마을에서 활동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일룹니다.

가 빨리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꿈이 실현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 샘을 하고 함께 노래부를 줄 아는 것을 배우는 마을주민들의 학교를 짓는 꿈과 함께 저는 이 공사가 끝나면 주민들과 함께 이 학교공사에 잘라 쓴 나무의 10배 정도를 심을 그림을 그려봅니다. 학교 가는 길을 만들고 야자수를 심고, 학교 주변은 온통 푸르고 높은 숲과 과실수들이 자라 아이들이 그것을 간식으로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야무지게 그려봅니다. 또한 밝게 웃는 아이들, 나무, 숲, 샘물 그리고 과실수 이 그림 위에 여러분의 꿈들도 하나씩 실현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민다나오는 원주민 마을사람들의 터전일뿐만 아니라, 민다나오JTS를 통한 한국인들의 인류에 대한 작은 공헌과 기초교육을 통한 작은 평화만들기의 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에 깊은 감사와 조용한 행복을 전합니다.

민다나오 JTS 센터 기공식



“이제 민다나오는 원주민 마을사람들의 터전일뿐만 아니라, 민다나오JTS를 통한 한국인들의 인류에 대한 작은 공헌과 기초교육을 통한 작은 평화만들기의 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JTS 센터 기공식

어려운 과정을 거쳐 허가증 받다

지난 3월부터 부키드논 주 리보나 시에 ‘JTS농업기술센터 건축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6월 초에는 그 허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를 허가하는 것은 리보나시에서도 처음이어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우리 공사의 허가신청을 받으면서 처음 만들기도 했고, 또한편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건축뿐 아니라 환경, 농업, 토지, 소방, 전기, 수도, 위생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담당자들의 서명과 공증을 받아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인내심을 갖고 협조하며 진행한 제이티에스에 한층 더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와 함께 6월은 센터의 기초공사가 시작됩니다. 더불어 센터 주변 마을 원주민 대표들은 공사를 위한 축원을 해주겠다고 벌써 전통의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의 꿈과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다

민다나오JTS를 통해 한국인들이 민다나오의 평화와 개발 교류에 관심을 갖고 기초교육의 지원을 시작한 이래, 민다나오의 원주민과 무슬림 그리고 이주·정착한 크리스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자신들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아름답게 유지 발전 시켜나갈 모색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좀 더 바빠지는 일정과 함께 축원과 만남, 훈련, 실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갈 그림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려나가는 일, 그에 담긴 많은 이들의 꿈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원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들이 더욱 빛날 그런 자리를 그려봅니다. ✨

스리랑카인들의 생활개선과 나아가서는 스리랑카의 전통 농촌사회를 보호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장기적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스리랑카의 농업개발협력 사업

김경희 스리랑카 JTS

2008년 10월 제이티에스는 스리랑카 NGO인 세와랑카재단의 소외계층에 대한 농업지원 요청에 따라 스리랑카에 사람을 파견하여, 스리랑카의 중북부 지역의 아누라다푸라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지역은 내전 중인 지역과 경계지역이어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지원도 거의 없는 지역으로 내전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9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또, 생계수단인 농업에 필요한 우물, 수로, 탱크등 대부분의 관개시설이 파괴되었다. 그 지역에서 다시 농업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농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JTS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에게 콤바인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농기계를 통한 이양법이 성공한다면 한국에서 쓰지 않는 중고 농기계들을 현지로 지원하게 되면 한국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며 또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스리랑카의 농업개발사업

JTS는 스리랑카의 농업발전을 위해 스리랑카 세와랑카 재단과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우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종자개량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스리랑카인들의 생활개선과 나아가서는 스리랑카의 전통농촌사회를 보호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스리랑카의 개발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좀 더 나은 농촌사회를 위하여

스리랑카도 현재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JTS와 세와랑카는 농촌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동력은 많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기계의 지원을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도 향상시켜서 전통적인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더 나은 농촌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농기계를 통한 생산성 높이기

우선 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흘뿌리기 방식을 이양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논되어 이양기의 지원을 통해 농법개선과 더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아직 이양기를 통한 실험은 지원시기와 현지의 농사시기가 맞지 않아 하지 못했는데, 이번 6월부터 시작되는 농사에는 한국 농부 1명을 파견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 기존의 흘뿌리기 방식과 새로 이양법으로 전환하였을때 수확의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양기 지원과 더불어 JTS는 콤바인도 함께 지원하였다. 이 콤바인을 통한 수확은 지난 마하시즌(10월-2월)에 시범적으로 진행해보았는데, 이전 방식으론 하루 동안 4명의 인원이 0.5에이커 논에 벼베기만 했다면, 콤바인을 이용해서는 3에이커(1에이커는 약 1200평)의 논을 벼베기부터 탈곡해서 포대에 담는 것까지 가능했다. 이것의 생산성 향상이 구체적으로 점검되지 않았지만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되었음은 바로 확인되었다. 현지 농업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 콤바인을 사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쳤을 때 모두 끌어안고 한국기계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하였다.

한국에서 지원된 농기계는 현지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형태로 고장이 덜 한 것으로 지원하였는데, 이후에 농기계를 통한 이양법이 성공한다면 한국에서 쓰지 않는 중고 농기계들을 현지로 지원하게 되면 한국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며 또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이를 기초로 스리랑카 전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세와랑카 재단과 협력하여 스리랑카 전역에 농기계 지원에 의한 농법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기반 시설 지원

또 현지에서는 농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외에도 농업기반시설 지원(관개수로, 저수지 복구, 농업용 우물)을 통해서 그동안 알라시즌(건기, 5-7월)에는 거의 농사를 짓지 못하던 땅 200에이커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반시설은 JTS가 자재를 지원하고, 세와랑카는 현지의 지역정부와 마을 공동체와의 모임을 주선하고, 마을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고, 지역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점검하고 잘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마을과 협력해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는 일부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농기계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현지 농업 교육훈련센터에서 실험중인 사항이라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효과를 느끼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본 지원이라면, 농업기반시설 지원의 효과는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어서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관개수로 공사시에는 관개수로가 완성되기도 전에 물길만 내고서 우선 주변의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언제 공사가 끝나냐고 물었더니 이번 농사 시기가 지나면 끝내겠다고 할 정도로 농민들은 반가워했다. 약 25년 동안 농지로 쓰지 못했던 땅 25에이커에 농사를 짓게 된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 다음 시즌부터는 총 40에이커의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 이 지역은 그동안 농번기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농사를 짓기도 했었는

데, 관개수로 지원으로 인해 자기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게 된 것이다.

또, 우수 품질 종자를 지원하거나, 가축(소) 지원을 통해서도 생산성 향상을 꾀하였으며 특히 소의 지원을 통해서는 노동력 제공, 아이들의 영양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향상 점검후 스리랑카 지역으로

제이티에스는 이 농업지원을 통해서 스리랑카의 생산성 향상이 점검된다면 이를 기초로 스리랑카 전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세와랑카 재단과 협력하여 스리랑카 전역에 농기계 지원에 의한 농법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예전의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비슷하기도 하고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간 개발협력사업으로 JTS 단독으로 하기보다 현지 NGO와 협력하여 스리랑카 농업의 기술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JTS를 믿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이들에게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

관개수로 공사중인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꿈과 희망인 학교

박주선 캄보디아JTS

5월 4일 캄보디아 프레이벵 주(州)의 록크라상 마을에 학교건축이 시작되었다. 3월 31일에 주민회의를 마치고 마을분들과 학교건축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준비한 후 본격적으로 학교 짓기를 시작했다.

학교는 한 학급에 30명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 3칸과 화장실을 짓는 것인데, 이는 캄보디아에서 6학년까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이다. 이는 오전 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오전에 수업을 하고, 그 외는 오후에 수업을 해서 대부분 3학년까지만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시골에 6학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첫공사가 시작된 날

학교가 세워질 곳에 말뚝 박고 공사 위한 기초 작업을 하던 첫 날, 날씨도 쾌청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더위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첫 공사가 시작된 날, 마을에서는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먹으면서 공사준비하는 즐겁고

흥겨운 모습이 우리 시골과 아주 흡사했다.

전 날 주문한 공사자재가 처음으로 마을에 배달되고, 마을이장과 기술자, 그리고 캄보디아 JTS 현지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도착한 자재의 수량을 확인하고 자재창고에 운반하면서 세심하고 정확하게 자재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마을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뢰가 생겼다.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마을주민

캄보디아에 처음 와서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명의 건축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면 '캄보디아에서 제이티에스 방식으로 학교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자재나 기구들의 분실이 많고 관리가 안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런 말들과는 너무도 다르게 마을주민들은 자기 일처럼 꼼꼼하게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주민회의를 하고 공사를 준비하면서 마을분

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학교 완공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제이티에스 요청사항에 협조해주시고, 마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공사 준비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모습에서 이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주민들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하게 되었다.

현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덕분

4일 동안 콕크라상 마을에서 공사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자재를 구입하고, 주문한 자재가 정확하게 배달되었는지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현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캄보디아어의 영어 통역, 자재 구입을 위해 구입지역과 자재상 선정에 의견 내고 함께 가주고, 현장까지의 운전지원을 하는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공사 준비를 위해 함께 분주히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도우면서 학교가 지어지는구나' 를 알게 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되었다.



7월 중순에는 완공될 수 있을 듯

현재 학교는 바닥 작업이 끝나고 기둥이 세워지고 벽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매일 평균 10명이 넘는 마을분들이 새벽 일찍 농사일을 하고 낮에는 학교건축에 참여한다. 마을이장님은 학교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술자분을 도와 함께 공사하고 계신다. 지금 이곳은 우기철이어서 비가 많이 오면 공사를 쉬기도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참여해 주고 계셔서 처음 공사일정에 따라 7월 중순에는 학교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다.



만날때 마다 반가운 사람들

건축공정에 따라 자재구입량을 결정하고 공사에 대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면서 때로는 다른 의견도 있고, 요청사항을 다 들어 줄 순 없었지만 함께 회의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들어 만날 때마다 반갑다.

일정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게 되니까 마을에 도착하면 공사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금방 마을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마을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고민해본다. ✿

아시아 어린이에게 학교를!

어린이날 서울명동에서 길벗의 어린이구호 캠페인

편집부

“1000원이면 한 식구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맨발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낮 서울 명동 한복판에 탤런트 배종옥씨의 ‘호소’가 울려 퍼졌다. 굶주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시아의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정성들이 모아졌다.

국제 구호기구 (사)JTS가 주관하고, 방송인들의 사회봉사모임 “길벗”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하루 1달러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 어린이에게 학교를 지어주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6년간 길벗은 JTS와 함께 매년 5월 5일 거리모금 캠페인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세요”를 주제로 방송인 배종옥, 김여진, 강두석, 성준기 등 방송작가인 노희경씨가 스텝으로,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서 방송인 스스로가 자원봉사자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모금운동과 공연을 했다.

한지민, 윤소이씨는 특설 무대에 올라 밝은 표정으로 시민들에게 어린 주먹 크기의 돼지저금통과 직접 사인한 엽서를 선물했다. 휴일 화창한 날씨에 명동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무대 앞에 모여 명동 일대가 발디딜틈 없이 북적였다. 특히, 인디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은 오픈 행사로 공연을 선보여 큰 환호를 받았다. 최다니엘, 서효림씨 등 함께 참여한 연예인 1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명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모금운동을 벌였으며 30여명의 드라마 작가, 연출 등의 길벗 회원, 수십명의 대학생·청년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활기찬 분위기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돼지 저금통 1,000개는 올해 12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캠페인을 통해 수거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인도 동게스와리, 필리핀 민다나오섬 등 아시아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짓는데 쓰일 예정이다.

총 모금액은 약 600여 만원, 캠페인 약 한 시간 만에 많은 시민들이 정성을 모아주셨다. 이 소중한 돈으로 학교가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꽃피울 수 있게 되었다.

“다섯에서 일곱여명의 식구들이 하루 1달러, 우리 돈 1,000원 남짓으로 살아가는 아시아의 가족들은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도 가질 수가 없다. 인도의 동게스와리, 필리핀의 분쟁지역인 민다나오등에 학교가 생긴다면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하루 한끼라도 급식을 제공받아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학교는 이 아이들에게 밥이고, 약이고, 희망이 된다.”는 구호로 아시아 어린이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시간과 정성을 내어 캠페인을 준비하고 진행하신 ‘길벗’ 모든 분들과 모금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금통을 나눠주고 있는 배우 한지민



아름다운 순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내 몫 한 게 참 좋아요

김여진 길벗 방송영화연극인들의 사회봉사모임

5월 5일 어린이날. 벌써 한달이 지나갔다. 구름 한점없이 맑은 날씨에 여름처럼 무더웠던 그날, 난 감기기운 때문에 긴 소매 셔츠에 머플러를 칭칭 감고 아침 9시 법당으로 향했다. 필요한 물품들을 신고 명동으로 갈 준비를 위해서다. 작년, 매니저와 함께 오후 1시 무렵 명동으로 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

작년에도 맡겨진 역할이 있긴 했다. 처음오는 연예인 후배들 잘 챙기기. 드라마 이산에 출연하던 다른 배우들과 함께 가는 자리여서 그것도 나름 신경쓰이는 일이긴 했다. 이번 거리모금은 처음 기획부터 참여해서 마무리까지 참가자가 아닌 스텝으로 일했다.

올해부터 방송영화인의 마음공부 모임인 길벗 내에서도 월례회의자이자 기획팀 팀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팀장을 담당한 배종옥 선배와 모금담당 이효진 작가와 함께 준비했

“ 그날의 햇빛, 공기, 사람들의 얼굴, 가수들의 노래와 열기, 박수,
저금통, 예쁜 파페포포 엽서, 우리의 구호
하루 1달러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의 어린이들
에게 학교를 지어주세요!! ”

다. 벌써 몇 년째 계속 되어온 모금이기에, 길벗의 선배들이 이미 틀을 잘 잡아 둔 상태였으므로 크게 힘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다. 처음 일 해보는 나를 많은 분들이 배려해 주셨고,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셨다. 지금 생각하니 그렇단 얘기다. 그러나 일하는 당시에는 참 별게 다 어려웠었다. 기획회의 안건 정하기, 회의록 작성해서 카페에 올리기, 큐시트 짜기, 일 나누기, 전화하기, 총무님과 법사님께 보고 메일 보내기, 전화받기, 섭외하기,

컴퓨터와 별로 친하지 않고, 전화 먼저하는 습관이 없던 나는 그런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다 모험이었다. 일을 분별하는 맘도 일었다. 위에 쓴 일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니 그래도 하면서 재미가 났다. 그런데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한 일들 - 물품 신청하기, 담당자와 통화하기, 견적서 뽑기, 지출결의서 쓰기를 해야한다는 말 들었을 때 '왜 이걸 내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다른 누군가가 해줄 거라 생각했던 일(내 멋대로).. 그렇게 일의 처음에서 끝까지 참 많은 공정이 들어간다는 걸 배웠다. 일과 일 사이를 메꾸는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부감' 때문에 실제 일보다 몇 배나 더 힘들어한다는 것도 보았다. 그냥 해버리면 한 줌도 안될 일을 가지고..

당일 명동을 가득 메운 길벗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딱딱 채워지는 모금함을 보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한 일이란 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비로소 알았다.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모아내기까지 열심히 길을 닦아온 길벗 선배들, 도와주신 실무자분들, 청년들, 법사님..그 길 위에 이제 겨우 내 뭉을 찾아 서기 시작했을 뿐인데, '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고, 우쭐해 했던 내 마음에 웃음이 났다. 그런 거지 뭐... '키득키득'.. 그날의 햇빛, 공기, 사람들의 얼굴, 가수들의 노래와 열기, 박수, 저금통, 예쁜 파페포포 엽서, 우리의 구호 "하루 1달러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의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세요!!" "학교는 아이들에게 밥을 줄 수 있고 약을 줄 수 있고, 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감동 아닌 게 없었다.

살면서 그리 기쁘고 행복한 날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내 뭉을 한 게 참 좋다. 12월 19일 딱딱 채운 저금통들 걸어서 민다나오에 학교 짓게 되기까지 쭈우욱 내뭉을 해 나갈 셈이다. 얼마나 좋을까 설레이면서.. ✨



나의 특별했던 어린이날 캠페인

모금 캠페인 참가자 한마디

글 편집팀



JTS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제3세계 어린이 빈곤퇴치 모금 캠페인을 가졌다. 총 26개 지역 789명이 참석하여 26,493,920원을 모금하였다. JTS는 세계 어린이 빈곤퇴치를 위해 정성으로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날의 감동과 열정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다.

“내가 JTS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광양 황용배**

어린이날 광양 서천변 공원에서 JTS 모금 캠페인을 가졌는데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총 6명이 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1000원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전혀 관심없어 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통해 기부하는 사람들... 만약 내가 JTS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말을 듣고 안듣고는 그들의 선택이다 라고 인정하고 나니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즐거웠다.”

“밝게 다가가니 밝게 다가왔다” **목포 조희옥**

처음 캠페인을 진행하느라 어색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같이 온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모금을 하니 분위기도 활발해지고 모금하는 사람들

도 용기를 내어 기쁜 마음으로 진행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모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니 선뜻 지갑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하였다. 역시 마음으로 밝게 다가가니 서로 밝게 다가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포항 강경희

어른 16명과 어린이 11명이 모여 12시부터 2시까지 해맞이 공원에서 JTS 홍보와 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공원에는 마칩 사생 대회로 많은 가족들이 모여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한가로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동물 캐릭터 머리띠를 쓰고 2인 1조로 활짝 웃으며 한 가족도 빠짐없이 모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모두들 적극 참여해 주셨고, 특히 아이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줄 때는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

모금을 직접한 아이들도 캠페인에 참여했다. 7세인 민석 어린이는 “친구들아, 과자랑 밥 만나게 먹어”라는 빼돌빼돌한 글씨로 적은 편지와 친척어른들께 받은 5만원을 모금함에 넣어주어 감동을 주었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서로 하나되는 기쁨과 나누는 보람을 느꼈으며, 사랑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생명을 살리는 돈” 강화 김미현

2009년 어린이날 행사장인 강화 고인돌 공원에서 캠페인을 가졌다. 9명이 참가했고 모금하였다.

엄마,아빠와 함께 온 최준형군과 마칩 집에 놀러온 불은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6시간을 진행 했는데 긴 시간임에도 지친 내색없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습에 감사하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랜 시간 있다보니 머리도 아프고, 힘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하다보니 즐겁게 할 수 있었다. 150원이라는 돈, 1000원이라는 돈이 생명을 살리는 돈이라는 생각이 드니 달리 보인다. ❀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다

노유정 화이트폭스 전자바이올린 연주가



화이트폭스(whie fox). 여성 4인조 퓨전클래식밴드 이름이다. 물론 내가 속한 팀의 이름이다.

모두들 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하였으나 다소 정적이고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의 틀에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궁리하던 중 6여년 전 대학동기인 피아노 전공 친구와 첼로를 전공한 동생이 함께 팀을 결성하여 공연활동을 시작했다. 전국을 무대로 광복60주년 문화사절단으로 동북아시아 3개국 순회공연과 베트남 공연, 또 오만 이슬람왕국에 3번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다녀오기도 했다.

5월 5일 (사)JTS 세계 어린이 빈곤퇴치 캠페인 사전 공연 제의를 받아 팀의 멤버들에게 뜻깊고 의미있는 일에 함께 하기를 권유하여 함께 행복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 어떤 공연보다 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밝고 환한 미소를 드러내며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했다. 공연을 통해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알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그 날만큼 뿌듯하고 보람있는 날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바닷가의 강한 햇빛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밝고 즐거운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것 같아 기쁘고 행복했다. 공연을 위해 아낌없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부산시민들에게도 감사하다.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나눔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이 메아리처럼 퍼져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싶다. 🌸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동게스와리와 지바카병원

편집팀

지바카병원의 시작, 아파서 학교를 못오는 아이들을 위해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안에 자리잡은 지바카 병원,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을 치료해주던 명 의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병원이 문을 열었다. 학교 아이들이 아침 조회시간에 쓰러지고, 입학을 하고도 오지않는 아이들이 많아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유를 알아보니 대부분 아파서 못 온다는 것이었다. 그 때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의사 까미스왈지가 아이들을 진료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간단한 치료에서 호모페틱과 양방진료까지

1995년에는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콜레라가 발생해서 학교는 임시 휴교를 하고 병원을 설치해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정부 의사들과 함께 콜레라 치료에 나섰다. 그 때 콜레라를 앓았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 3학년이 올라가는 싯다르타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 교장실 쪽에 있는 건물에 두 칸 정도의 지바카 치료소를 설치하여 마을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결핵환자들에게 밥과 약을 주며 몇시간 정도만 진료소 문을 열었다. 그렇게 시작했던 진료소가 2001년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지바카 병원으로 확장되었다. 처음의 지바카 진료소의 치료는 아주 간단했다. 조그만 상처에 간단히 소독만 해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놓쳐 크게 키우는 그런 일을 막아 적절히 치료하겠다는 것이 진료소의 목적이었다.

지금은 병원 규모가 커져서 동게스와리 16개 마을주민 12,000여명과 기타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일반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의학과 비슷한 호모페딕(同種療法)이라는 진료와 양방 진료를 하고 있다.

결핵과 모자보건

특화된 사업으로 결핵퇴치와 모자보건 사업이 있다. 결핵퇴치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환자들을 진료소로 모두 오게 하여 현장에서 약을 먹게 하고, 영양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영양식과 죽도 주었다. 겨울엔 밥을 주고, 여름엔 불린 콩이나 사투, 미숫가루 같은 것도 주었다. 2008년 7월에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결핵 시스템을 알게 되어 이제는 무상으로 약도 받고 진료도 한다.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정으로 약과 비스킷, 계란을 같이 배달하기도 한다.



지바카병원 전경

그 동안 270여 명의 환자 중 132명이 완치되었고 불행하게도 죽은 환자들도 있었고, 다른 마을로 이전된 환자들도 있다.

모자보건 사업은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방의학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하고 예방 접종을 하였다. 예방 접종은 BCG(결핵), Polio(소아마비),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Hep.B(B형 간염), Measles(홍역) 5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허약한 산모들을 위해서는 파상풍 주사를 접종하고, 저체중 아이들에게는 분유도 지원한다. 장려 차원에서 예방 접종을 맞으면 구호품을 선물하기도 한다. 또 가난의 원인인 다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계획 캠프도 실시하고, 피임 수술도 올해까지 세 차례 실시했다.

이와같은 예방접종은 지바카 병원에서 여건상 일 년에 한 두 차례 실시하지만 정부 병원은 수시로 열려 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정부병원을 찾아 가기도 하는데 약간의 보조금도 나온다. 직접 정부병원에 방문해 보니 수술 받으러 온 환자들도 많을 뿐더러 지금은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진료의 시작

2009년 3월부터는 국제로터리 3690지구에서 앰블런스를 기증하면서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본격적인 이동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앰블런스 안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



꿈을 현실로 (Make Dreams Real)

인터뷰 국제로타리3690지구 정주화 총재
정리 편집팀



지난 3월 6일 국제로타리 3690지구는 JTS에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이 기부금은 인도 자바카 병원에 앰블런스(응급환자)와 정기 결핵환자 검진, 백신수급, 이동진료서비스 등에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인도 자그디스푸르에 유치원을 증축하는 기금으로 쓰여졌다. JTS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발한 봉사활동과 우리 사회에 취약한 기부문화를 적극적인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고 계시는 국제로타리 3690지구 정주화 총재를 인터뷰했다.

“ 꿈을 현실로

국제로타리가 소아마비 박멸 사업과 더불어
그간 이 어려운 역점사업인 수자원 보호, 보건 및 기아완화,
식자력 향상(문맹퇴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유아사망률 감소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1. 국제로타리3690 지구는 어떤 단체인가요?

국제로타리는 (RI : Rotary International)는 120만 명의 사업, 전문직업 및 지역사회 리더들로 구성된 전세계적인 단체입니다. ‘로타리안’으로 불리는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인도주의적 봉사를 제공하고 모든 직업의 높은 도덕적 수준을 고취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의와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우리 3690지구는 인천, 경기 서북부 지역에 100개 클럽, 회원수 3,644명입니다.

2. 국제로타리 3690지구의 주요활동은 어떠한가?

로타리는 재단기부와 지역내 봉사활동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봉사를 하고 있으며 재단기부는 국제로타리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세계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지역내에서 재정적 또는 직접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jts 에 기부하신 기금은 어떻게 모았고 모으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국제협의회에서와 국제로타리 (RI) 홈페이지에 전 세계 차기총재들에게 제안 드린바 있는 행동하는 휴머니즘으로 북한 및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매월 1개의 식

사를 굶어서 기아체험을 통해 음식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그 비용을 기부하는 프로젝트인 MDRF (Make Dreams Real Fund)-유아 사망을 감소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구 내 회원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신춘음악회를 맞이하여 돼지저금통을 모았고 4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금을 모으는 동안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각 클럽에서는 특색있는 방법으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미있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돼지저금통에 아호를 붙여 주회 때마다 한 개씩 돌리며 성금을 하기도 하고, 개봉시에 성금을 1위하기 위하여 서로 앞 다투어 주머니에 있던 돈을 더 내는 등 봉사를 위한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5. '로타리'는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로 유명합니다. 특히3690 지구는 봉사활동이 타 지구보다 활발하고 창의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평소 봉사 철학이 있으시다면요.

‘어린왕자’에서 얘기하는 배려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합니다. 모두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고 누구



아픈어린이에게 약을 먹이는 정주화총재



“ 우리 로타리안의 따뜻한 마음과 머리, 영혼으로 어린생명을 구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



지바카병원 앰블런스



이동진료를 기다리는 주민들

나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베품이 아닌 나눔이 아닌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배움에 배제되지 않게 모든 어린이를 우리의 자녀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6. 인도에서 직접 기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고 들었습니다. JTS 에 기부하시면서 느낀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금이던 그 기금이 모이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이 기금이 어떤 단체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럼에 있어 JTS는 우리에게 이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거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7. 기부금은 인도의 오지 동계스와리에 있는 인도jts 구급차와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동계스와리 마을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눈빛은 맑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진 못했으나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8. 3690 지구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 3690지구는 3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초아의 봉사단체입니다. 우리 주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그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에 산모영양죽, 기아성금을 제공할 것이며, 탄자니아에 병원을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9. JTS 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JTS는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JTS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어려움이 모두 아름다움으로 변할 수 있는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오늘 첫 만남입니다

정리 JTS 회원팀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후원신청을 하면서 JTS에 바라는 점을 기록한 후원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잘 담아 활동하겠습니다.

얼마 전 노희경 작가님의 책을 읽고 JTS를 알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지, 막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그 책이 계기가 되어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봉사활동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작은 정성 값지게 사용해주세요...

최은주(4/23)

부디 이 작은 저의 배려로 북한아이들 하루라도 굶주리지 않았음 하는 마음으로 보내니 좋은곳으로 써주세요~

음명주(4/23)

여기 저기 찾다가 후원금 횡령 없이 깨끗한 곳이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길 바랍니다.

안희옥(4/25)

좋은 곳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아직은 미성년자고 학교도 다녀야 되서 이렇게 밖에 못하지만,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이슬(5/6)

깨끗하고 정직하게 구호활동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힘써주세요. 저도 계속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준(5/19)

국내소식



구정고등학교 어린이날 캠페인 열어

구정고등학교 어린이날 캠페인 열어

구정고등학교 학생들 72명은 학부모 19명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제3세계 빈곤퇴치 캠페인을 명동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 이 캠페인에서 학생들 스스로 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방송을 하고 모금액도 직접 계수하는 열성을 보였다. 이날 행사로 모아진 모금액은 808,590원으로 학생들이 JTS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경험해 보는 행사였다. 매년 JTS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주시는 구정고 학생들과 샤프론 어머니회에 감사드리다.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어린이와 학부모들 바자회 수익금 JTS에 기부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어린이와 학부모들 바자회 수익금 JTS에 기부

경주 동국대 부속 유치원은 2004년부터 꾸준히 북한어린이를 후원해오고 있는 단체로, 지난 5월 자비의 손길, 나눔의 바자회 행사(배고픈 아이에게 음식을, 아픈 아이에게 약을)를 통해 한두 푼 모인 성금과 각반의 장터판매, 기타 판매금을 통해 얻어진 2,000,000원을 JTS에 기부했다. 기금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경주 동국대학교 부속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리다.

현대자동차 삼풍대리점, 필리핀 민다나오 사업장에 기부금 전달

현대자동차 삼풍대리점(소장 : 백성희) 에서는 필리핀 민다나오에 1,000불을 기부하였다. 대리점 전 직원이 차량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1만원씩 적립하여 모은 기금이라 더욱 뜻이 깊다. 이 기금은 'FARM DEVELOPMENT TRAINING CENTER' 설립에 쓰인다.

서울장원로타리, 필리핀 민다나오 사업장에 기부금 전달

서울장원로타리에서는 (회장:기성중) 필리핀 민다나오 현지에서 1,300불을 기부하였다. 이 기금은 'FARM DEVELOPMENT TRAINING CENTER' 설립에 쓰이며, 이 센터는 원주민, 마을리더, 학생, 주민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소프트포럼, 저금통 제작비로 1000만원 기부

인터넷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소프트포럼(회장 김상철)은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과 식량을 지원하는 기금을 모으기 위한 저금통 제작비로 1000만원 지정기부하였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사회공헌과 기부의 문화가 사회적 책임으로 보편화된 지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이 기부금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작은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김상철 회장은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 기부금은 저금통을 만들어 기금 모음을 하는데 활발히 쓰일 것입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기금 협약식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지난 6

월 9일에 JTS대표 김기진님과 전국사회보험 지부장 김동중님 등과 여러분을 모시고 북한돕기 기금 500만 원을 기부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김동중님은 인사말에서 조합원들이 매달 1000원씩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도 우리가 안아가야 할 이웃이기에 매달 50만원씩 기금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어려운 북한 동포를 위해 선뜻 기부해주신 전국사회보험지부에 감사드립니다.

양산 중부초등학교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

중부동 중부초등학교(교장 김상민)는 JTS에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중부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 지도교사, JTS울산 김용주대표와 자원활동가들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중부초등학교는 굶주리는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전교생들이 사랑의 동전모으기를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어 1200여개 회수되었고 계수한 금액 2,095,790원을 JTS에 기부하였다. 제3세계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할 우리 아이들이 동전모으기라는 작은 나눔을 실천한 귀한 결과물을 받으면서 이 뜨거운 사랑의 원동력이 제3세계의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큰 힘을 주리라 생각한다. 사랑을 실천



서울장원로타리, 필리핀 민다나오 사업장에 기부금 전달

국내소식

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저금통을 분양하고 수거해주신 중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들과 집에 가져가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동전 하나도 소중히 모아주시는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초중학교 빈곤퇴치 캠페인 열어

5월 30일 서초중학교 고이금 선생님과 학생 40명이 남부터미널에서 제3세계 빈곤퇴치 캠페인을 하였다. 처음에는 장난도 치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차츰 진지하고 열성적인 활동으로 418,070원을 모금했다.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금활동에 임해주신 서초중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탐앤탐스커피 캔커피 기증

5월 23일 3개 종교단체(정교회·경동교회·문정동성당) 공동행사인 나비바자회때 조손가정돕기를 위해 캔커피 2000개를 JTS에 기부하였다. 이날 바자회에서 캔커피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100여 만원의 수익금을 냈다.

정정보도

지난호 (77호)에 기사 인도현장소식에 지바카병원 앰블런스 지원 내용 기사 p.26 아래에서 세째줄 '서울 로터리클럽'에서 '국제로터리클럽 3690지구'로 정정 보도합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기금 협약식



양산 중부초 등교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



탐앤탐스커피 캔커피 기증

인도 · 캄보디아 소식

수자타아카데미, 즐거운 수업 (Joyful learning) 수련 진행

수자타아카데미 유치원 책임자인 8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 32명이 6월 8일부터 6월 12일 4박5일 동안 캄커타 세바켄드라에서 '즐거운 교사수업 수련'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을 위한 놀이수업연구와 실습과 캄커타 박물관, 과학도시방문 등의 견학으로 짜여진 이 프로그램은 막사이사이 재단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수자타아카데미, 각 유치원 여름 방학

인도의 휴서기로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수자타아카데미와 각 유치원은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지바카병원, 이동진료서비스 3회 진행

5월 한달 동안 3회에 걸친 이동진료가 있었다. 약 200여명의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하였고, 임신부, 결핵환자, 신생아 접수를 받았고, 3개 마을에서 총 88명의 환자를 무료 진료하였다.

코로빙, 건축 주민회의 열려

5월 24일 프레이벵주 코로빙마을에서 캄보디아JTS 대표 정철상님과 스텝, 그리고 현지자원봉사들과 마을주민 80명이 참여하여 주민회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빙에 짓게 될 학교에서는 스와이쿤 마을의 아이들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학교공사에는 코로빙과 스와이쿤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주민회의는 두 마을을 대표하여 부이장님들과 정철상 캄보디아JTS 대표님의 인사말과 제이티에스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일정을 마친 후 각 마을 이장님과 지방정부 대표로 Chrey(스레이) 면장님이 MOA에 동의하고 학교를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자타아카데미 유치원생들



문갑수	P0039056	양윤경	P0039975	이홍우	P0006564
문은희	P0028996	양창순	P0002341	이희경	P0040093
문지훈	P0039044	예코유지	S0039903	임근영	P0038671
문화자	P0037970	염경열	P0039418	임명옥	P0039041
박건희	P0033636	오수영	P0038301	임미혜	P0038899
박경미	P0038354	오여준	P0039351	임영란	P0039045
박경일	P0039623	오영란	P0025338	임지홍	P0038884
박명란	P0038761	오영은	P0038829	임호진	P0040092
박문현	P0040541	오중섭	P0039002	장소영	P0015720
박마숙	P0038842	오한범	P0038830	장애슬	P0039220
박미점	P0010488	오홍목	P0010318	장윤미	P0018588
박선호	P0038468	우해연	P0038912	장혜윤	P0040754
박설아	P0039785	유종순	P0039497	장화숙	P0028522
박성용	P0028615	유해경	P0039051	진경화	P0038985
박성철	P0039356	유화정	P0038677	진돈수	P0039034
박양숙	P0038992	윤미영	P0030092	진미희	P0039058
박영미	P0039014	윤순애	P0038617	진서영	P0039581
박유진	P0039621	윤승미	P0039213	진소율	P0039040
박재윤	P0040221	윤영옥	P0005455	진연경	P0039784
박정국	P0039291	윤은숙	P0039376	전혜경	P0039215
박정선	P0039631	윤철현	P0039263	정근영	P0004831
박종서	P0039498	윤명주	P0039900	정영란	P0039013
박종성	P0039503	이금화	P0039223	정영숙	P0038676
박종선	P0024543	이기열	P0039255	정우식	P0032659
박지숙	P0039756	이동걸	P0039790	정은주	P0039350
박지혜	P0039209	이동준	P0038687	정종대	P0038886
박진만	P0039221	이만영	P0029044	정영숙	P0038973
박찬미	P0039247	이명순	P0026564	정지은	P0038467
박창수	P0039068	이민호	P0038832	정찬영	P0039015
박혜영	P0038685	이미옥	P0038739	정혜림	P0039139
박혜진	P0039370	이병호	P0038950	정환주	P0038288
배광윤	P0038643	이상웅	P0039146	정희은	P0033438
배민주	P0039325	이석우	P0038986	제순희	P0003373
배선영	P0039391	이선희	P0038996	조경현	P0039358
배은영	P0015616	이소진	P0039788	조규민	P0039036
배정임	P0039371	이수진	P0038435	조기영	P0039446
백기순	P0039231	이수진	P0038349	조관희	P0025001
백성애	P0012482	이숙화	P0039372	조민경	P0038909
백채경	P0035674	이승미	P0039355	조민수	P0039043
부정현	P0039007	이영란	P0033425	조병준	P0040753
서상희	P0039012	이영란	P0033635	조승제	P0039798
서성애	P0039297	이영숙	P0038013	조은서	P0038901
서윤진	P0014920	이영숙	P0039210	조태영	P0024958
서주리	P0038913	이영재	P0030137	조필영	P0039496
서진	P0039604	이영호	P0038647	조현준	P0039264
서형원	P0040001	이영화	P0038491	중수스님(정기원)	
손상지	P0006688	이원홍	P0038741		P0039500
손세미	P0038764	이윤정	P0039148	진경희	P0038747
손아영	P0037862	이재성	P0023117	최경옥	P0003762
손익련	P0022444	이종숙	P0039035	최수용	P0039031
송영자	P0040341	이종희	P0039004	최수인	P0038628
심미남	P0038650	이주현	P0038888	최신호	P0038462
신석일	P0038506	이주형	P0038734	최여정	P0033054
신수현	P0011068	이지혜	P0039354	최연영	P0008420
신은주	P0040368	이철진	P0038855	최윤정	P0038745
심영만	P0029974	이춘우	P0033760	최은영	P0030833
안건호	P0038675	이혜진	P0038465	최현아	P0038896
안미남	P0040269	이현민	P0031913	최홍관	P0039368
안우상	P0038864	이한병	P0027852	추세인	P0039216
양승락	P0033225	이혜원	P0037320	태은정	P0034818
양승렬	P0004629	이혜원	P0039174	하세희	P0038627

하승곤	P0039250	김다혜	P0038743	류솔비	P0039047
한병욱	P0038893	김령	P0037972	문신정	P0037421
한영순	P0039390	김만정	P0032162	문은희	P0028996
한정애	P0029181	김중철	P0004175	박경일	P0039623
허선아	P0039061	김중현	P0030509	박수성	P0011822
현옥연	P0038689	류솔비	P0039047	박정국	P0039291
형정희	P0038212	문은희	P0028996	박종성	P0039503
해곡(이상호)		박경일	P0039623	박찬미	P0039247
	P0038849	박명란	P0038761	배은경	P0016915
홍선표	P0038948	박성용	P0028615	송문재	P0030470
황미라	P0039458	박양숙	P0038992	송민경	P0038350
황소영	P0038862	박정국	P0039291	신봉숙	P0038637
황정란	P0038988	박정민	P0014965	신석일	P0038506
		박종성	P0039503	신은주	P0040368
		박찬미	P0039247	양승락	P0033225
		배은경	P0016915	오영란	P0025338
		부정현	P0039007	우해연	P0038912
강한정	P0039000	서주리	P0038913	윤국성	P0039737
고용선	P0040767	신석일	P0038506	윤은숙	P0039376
김병준	P0014594	신은주	P0040368	윤철현	P0039263
김성애	P0039304	오현범	P0038830	이경림	P0021577
김윤의	P0036541	윤국성	P0039737	이만영	P0029044
김진수	P0039976	류미금	P0022264	이정선	P0003260
김지수	P0039976	류솔비	P0039047	이만영	P0029044
김미금	P0022264	문은희	P0028996	이영은	P0016867
류솔비	P0039047	민지혜	P0038738	이선미	P0039219
문은희	P0028996	박경일	P0039388	이세영	P0039388
민지혜	P0038738	박다혜	P0040220	이영호	P0038647
박영숙	P0038992	박양숙	P0038992	이종숙	P0039035
박정국	P0039291	박종성	P0039503	이종인	P0024213
박종성	P0039503	박지은	P0040218	이향순	P0011400
박지은	P0040218	배은경	P0016915	이혜원	P0037320
배은경	P0016915	안남희	P0009175	이향희	P0039327
손선희	P0037179	전서영	P0039581	이혜원	P0037320
신은주	P0040368	최여정	P0033054	임근영	P0038671
심경희	P0034578	최윤정	P0038745	임남환	P0009175
안호진(안선민)		최윤희	P0024074	장서윤	P0005501
	P0039908	최재웅	P0036193	진미희	P0039058
이만영	P0029044	최희순	P0039583	조동원	P0040534
이영호	P0038647	허선아	P0039061	조숙희	P0038452
임남환	P0005720			중수스님(정기원)	
임양호	P0005720				P0039500
임영진	P0038765			채경실	P0028857
장병수	P0039580	강령호	P0038286	최여정	P0033054
정재남	P0004106	권경희	P0023365	최원영	P0039616
조미라	P0038525	권민혜	P0029351	최윤정	P0038745
최나용	P0007465	권은숙	P0038642	최은주	P0039965
최부선	P0040100	김동희	P0039332	최인숙	P0039141
최여정	P0033054	김령	P0037972	최진	P0039448
최윤정	P0038745	김미경	P0011838	태은정	P0034818
허선아	P0039061	김성현	P0039632	허선아	P0039061
하을	P0040788	김소희	P0039199	해곡(이상호)	
해곡(이상호)		김영범	P0038959		P0038849
	P0038849	김영찬	P0034687	황정란	P0038988
		김윤미	P0038994		
		김은희	P0027197		
		김중현	P0030509		
		김주영	P0038522		
		김지숙	P0040089		
		김현정	P0039226		
		김현주	P0038736		

북한재건

인도모자보건

결핵퇴치

특별후원금

2009년 4월 1일 - 2009년 5월 31일

인도후원

28사단 호국광명사1575부	박영화 200,000원	임복술 100,000원
대 부처님 오신날 보시금 200,000원	박윤수들기념 100,000원	임영화 300,000원
64차 일개 152,000원	박정순 100,000원	장금숙 100,000원
강대극남52세 생신축하 100,000원	박진석 20,000원	장영숙 30,000원
강연수,오재인 영가 300,000원	박태욱 50,000원	장영진 11,950원
강윤규 30,000원	박혜숙 필리핀 학교 지원 100,000원	장윤미 30,000원
강운진 89,500원	백영일스승의날 기념 특별후원금 50,000원	전친옹 83,810원
공원관 100,000원	북경정토회 필리핀 학교지 1,000,000원	정순돌 30,000원
교대(하관) 500,000원	기 지원 770000원	정영자 인도 우물 파기 30,000원
권영희 500,000원	사회보훈지부 1,000,000원	정원영 100,000원
권영민 20,000원	성소희 3,000원	정안권 52,190원
권현숙 10,000원	성지은 50,000원	정정화 5,570원
김경수 100,000원	손영희 45,000원	정정화 10,000원
김계향 20,000원	송민철 100,000원	조은희 1,000,000원
김남수 300,000원	송은호 105,000원	지옥 100,000원
김동욱 21,450원	송재영,송현 15,000원	진소희 50,000원
김동욱 23,500원	신대식 30000	치윤실 34,000원
김미숙이아들 학교지기 2,000,000원	신선재 200,000원	최도은 100,000원
김미정 50,000원	신승희 59,630원	최미대자 113,420원
김삼선 10,000원	신현진 1,000,000원	최성석 100,000원
김소영 120,000원	안방일 10,000원	최대련 30,000원
김소영 120,000원	양경화 30,000원	최한진 10,000원
김영선 50,000원	양수현 50,000원	표인수 300,000원
김재영 100,000원	양정순 200,000원	한영희 10,000원
김정대 200,000원	염애순 204,220원	허욱 18,940원
김정윤 150,000원	염애순 50,000원	황석규 2,000,000원
김정철 10,000원	오미라 10,000원	황소경 10,000원
김주현 10,000원	오 풍 자 인도 우물 파기 1,000,000원	KBM 종합건설 10,000원
김창주 22,510원	유경화 100,000원	북한어린이 돕기
김창주 22,520원	유수령 10,000원	강주희 20,000원
김형기 500,000원	윤장숙 100,000원	경주통국대부속유치원구술반, 연꽃반, 슬기반, 초롱반, 셋별반, 청솔반, 햇살반, 새싹반, 맑은샘물반 바자회 수익금 2,000,000원
김혜자 2,000,000원	윤태현 14,050원	구순남 200,000원
김호동 10,000원	음주원 100,000원	구순남 100,000원
김희자 35,250원	이경선 38,740원	김동욱 14,000원
김희태생일축하 100,000원	이근남 100,000원	김미숙 3,000,000원
마켓사이트(주) 4,440,240원	이명희 10,000원	김보미 50,000원
문병두,송정순영가극락왕생 200,000원	이미애 10,000원	김상철 20,000원
문성민가정의달을맞이기념 100,000원	이민훈 43,000원	김상철 50,000원
문진영 23,750원	이병민 20,000원	김상철 50,000원
박근숙 100,000원	이병호백일기도 입재기념 보시 1,000,000원	김순옥 30,000원
박영희 46,300원	이양욱 10,000원	김옥임 30,000원
박성진 50,000원	이영재 200,000원	김은정 50,000원
박영옥 10,000원	이정민 60,000원	김태순 60,000원
	이종근 200,000원	김한정 100,000원
	이현숙 30000원	문세정 79,550원
	이현숙 100,000원	
	임남환 등 31인(신서고등학교) 200,000원	

문금령 100,000원	김복분 90,000원	한미희 100,000원
박기원 생일기념 100,000원	김성순 2,300,000원	한주현 81,470원
박영애스승의날 기념 특별후원금 50,000원	김성환 500,000원	허울 25,930원
박은현 100,000원	김승도 1,000,000원	황순옥 194,540원
박재근 50,000원	김영배 30,000원	황준성 20,000원
박재운 200,000원	김요기 100,000원	
박홍희 1,000,000원	김유정 300,000원	결핵퇴치
백기순 5,000,000원	김유의 100,000원	김은정 50,000원
서성애 50,000원	김종희 100,000원	윤국선 10,000원
서형원 1,500,000원	김진수 100,000원	이경선 300,000원
손재선 1,000,000원	김홍숙 300,000원	이명은 150,000원
신형철 100,000원	김희진 20,000원	임남환 등 31인(신서고등학교) 200,000원
신선연 30000원	김명희 200,000원	
신승우 30000원	노혜숙 50,000원	
예교뮤지 500,000원	류미금 30,000원	
양행선 30000원	문성연 100,000원	인도모자보건
여인옥,여승은,여승진 150,000원	박다혜 50,000원	김대업 100,000원
에천이리광제추진위원회(김대희) 160,000원	박순덕 100,000원	김경은 1,000,000원
유영도 100,000원	박승문 10,000원	윤명옥 50,000원
유영주 30,000원	박지성 20,000원	이경림 20,000원
이기열 30,000원	박지현 20,000원	이운희 300,000원
이덕기 100,000원	박지영 50,000원	임남환 등 31인(신서고등학교) 200,000원
이상숙 70,000원	박지현 20,000원	학교) 200,000원
이현병 500,000원	서애경 1,000,000원	정정숙 100,000원
이희경 100,000원	서창민 100,000원	조대제 10,000원
임남환 등 31인(신서고등학교) 200,000원	송영화 50,000원	조동원 34,000원
장혜운 115,510원	송영희 50,000원	채경실 10,000원
정은주 100,000원	심동현 86,000원	
조병준 1,250,000원	심명택영가기념 20,000원	
최성석 100,000원	심추철 1,000,000원	
최수인 5,000원	안호진,안선민 53,460원	
하세희 1,000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68,600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64,200원	
	윤미라 10,000원	
	이덕기 400,000원	
	이워선 100,000원	
	임남환 등 31인(신서고등학교) 200,000원	
	임정이 100,000원	
북한재건	장대인 10,000원	
(주)헤르메스 미디어 3,171,600원	장대인 10,000원	
강현정 20,000원	장영은 200,000원	
권나연 50,000원	장범수 60,000원	
김가림,정범기결혼기념일 300,000원	정순희 100,000원	
김계향 50,000원	정재남 1,000,000원	
김남수 100,000원	정철상 528,000원	
김남수 160,000원	채경실 10,000원	
김명선 20,370원	최낙용 100,000원	
김미숙 105,000원	최덕혜 1,500,000원	
김범준 10,000원	최형진 26,000원	
	하은이 30,000원	
	하은정 26,000원	

나눔저금통 현황

2009년 4월 1일~2009년 5월 31일

→ 경주

이승락 13,480 이준엽 37,500 이지화 41,000 정미선 35,550 주말매 24,980

→ 광주

금천초등학교 65개 307,580(1~2반 이경준 8,410 이현수 3,550) (4~1반 김대운 1,000 김승현 1,100 김찬수 2,000 박기쁨 10,000 이명호 1,000 이선정 5,000 이수지 12,000 이주희 2,000 이현숙 30,000 조유미 5,000 홍기정 1,000 홍민근 1,000) (4~2반 김연승 2,470 김영희 2,320 김유연 1,000 김혜원 1,000 나영서 3,300 마슬민 400 박준성 1,300 안진수 2,600 이소연 6,900 이영이 700 임근수 200 장민호 1,000 조경진 2,200 최달남 3,600 한진 20,000) (6~1반 김술 10,650 김희영 2,210 나영은 5,630 남주영 1,090 남주영 1,080 머루 2,530 명진 1,200 무명 1,450 무명 38,400 무명 24,700 무명 11,400 상훈 4,900 수영 550 신머루 2,300 영은 5,550 예슬 930 용수 650 우현 730 원민 2,720 유림 600 유정 2,400 임나라 2,070 정환 1,000 준행 10 최치수 3,010 태웅 840 혜정 200 혁영 2,800) (6~2반 1조 12,200 2조 3,130 3조 1,800) 김술 6,950 김예슬 1,290 김유정 5,460 박상훈 8,860 임나라 4,240) 모던물루선(최양길) 88,000 박영주 28,320 장선희 7,240 장성상계우재국 66,120 태경희,태란선 26,470

→ 김천

고진영 16,040 구영희 53,000 김천농고식품가공3학년 이상우외32명 29,180 여현주 90,200 유옥은 12,970 직지성보박물관 20,590 철곡복합농협 48,500

→ 대구

김선혜 49,730 김영배 40,600 김정미 16,700 김진석 25,120 김태진 17,280 류중필 18,390 무명 14,320 무명 77,510 민지하 17,580 박소영 23,500 박준영 34,140 박준현 21,530 박중근 23,710 백유선 4,730 석은숙 37,090 소망어린이집 23,170 신준섭 22,720 이나라 8,130 이순옥 5개 102,180 이영주 25,720 이옥순 16,420 이태란 18,350 임명지 17,690 임은숙 21,570 정선화 10,180 제영호 32,010 조민희 27,550 조인호 13,930 차상식 4개 89,940 최순희 18,990 학남중 22,750

→ 대전

강순자 1,120 김기일 22,520 김동운 60,390 김동희 23,640 김정운 5,140 김종덕 16,080 김태수 28,830 김현수 14,540 무명 15,090 무명 17,330 무명 29,290 무명 26,120 무명 14,710 민들레학원의원 24,430 박민수 6,440 보부상 4개 29,720 수정수퍼 140,030 월감상영가 15,650 유인자 28,250 유재연 27,180 유재현 16,670 이연서 81,590 장우진 23,290 조민숙 14,050

→ 동래

강예슬 10,430 강예진 11,800 강철원 38,350 강철원 42,500 경미 4,480 고준순 6,320 공정한 39,780 김금지 47,700 김남순 28,000 김남순 28,000 김성현 3,690 김소연 50,360 김영민 26,900 김정자 23,520 김준한 47,250 김창규 26,730 김태희 20,120 김현명 33,360 김현지 16,400 김현호 35,200 도연 6,060 도연 27,100 도형 21,060 류숙희 25,430 류진수 26,650 무명 35,000 무명 6,710 무명 24,770 무명 5,700 무명 8,470 무명 18,120 무명 7,490 무명 14,200 무명 4,530 무명 2,590 무명 4,570 무명 15,860 무명 12,670 무명 14,090 무명 13,600 무명 1,120 무명 69,820 민정 16,790 박윤희 35,430 박해인 13,930 법문주 273,180 서승희 11,450 서정화 70,490 서호성 48,810 손예원 29,180 손찬빈 10,850 심연주 11,780 양경아 28,810 오외숙 47,880 유진 8,060 은경 7,660 이정희 25,320 이종철 40,200 이철호 14,150 이학권 137,350 장연주 12,060 장재 원 6,640 전국 22,220 정수민 9,700 정수연 20,250 조민서 21,500 조정선 32,940 조정희 73,820 진숙희 25,880 최병일 3,380 최병일 19,540 최병일 26,910 최혜란 16,140 황영자 12,430

→ 마산

강외조 7,650 경인학원송민서 5,870 경인학원조동수 1,000 권은주 10,280 김삼선 36,370 노중자 13,010 무명 18,100 무명 1,710 무명 13,960 무명(안) 29,950 무명5통 34,650 안중제 7,920 오성석 25,200 오주승 30,430 이상돈,한명희

25,240 이선정 13,580 이승현 30,630 이양욱 3,900 이자윤(김상행) 7,240 장가네획집 3,800 전병일 10,980 지은아 29,090 진명생 17,300 합포내과 23,480 홍수진 30,500 황인석 19,56

→ 서울

62차일개생 18,440 강경민 31,150 고광삼 39,130 과천차유학교 661,140 광봉준 35,660 광봉준 61,330 권태숙,김민희 33,420 권형준 38,730 기용환 6,640 기용건 3,030 김우열 4,220 김유진 21,220 김조은 8,200 김향 31,230 김혜원 74,250 무명 17,620 무명 19,850 무명 24,110 무명 16,260 무명 23,850 무명 18,080 무명 30,990 무명 72,800 무명 12,620 무명 17,180 무명 3,750 무명 33,740 무명 15,360 무명 54,380 무명 17,490 문정숙 21,080 바라밀 35,520 박경미 22,470 박명주 41,720 박성진 51,840 박정수 28,600 방용사 58,870 손은진 13,050 신방학중 25 71,170 심연숙 27,870 심우현 28,060 심재민 32,830 안자은 35,510 안자은 35,140 원상연 19,160 육혜경 38,680 은평법랑대지 157,570 이나경,태경,나윤 16,930 이명옥 41,250 이원진 17,610 이민준 16,350 이종현 30,430 이지현 12,500 이호성 21,470 임한민 9,190 장길호 103,480 장도연 20,770 장예진 31,610 전병숙 24,400 전형수,상수 55,020 정동호 21,010 최원석 29,540 최은석 28,200 최정훈 19,680 최형용 22,080 하경혜 6,360 하경혜 9,700 하미숙 26,470 한혜지 57,920 황경심 27,230 황현실 12,730

→ 울산

글라스박스안경 7,860 김버리 23,510 김주영 45,960 무명 41,810 무명 21,960 무명 25,590 무명 51,780 무명 4,392 무명 나촌달삼산점 27,450 신진아 44,450 이병호 53,270 임미경 16,110 장숙희 34,680 장숙희 12,840 팽비디오 21,380 최정수 23,250 최정수 23,780 축협남구지점 16,550 축협중앙지점 13,740 토미보이 울대점 19,970

→ 제천

강소영 26,000 박민주 31,350 이승현 21,410 최정윤 32,440 황지연 25,260

→ 청주

기흥진 31,910 김진조 34,060 김향자 31,800 박노옥(삼수초5~6반) 23,930 박준자 30,240 성영숙 44,790 심재마 20,520 원평초교5~1반 12,120 윤귀예 21,470 이국태,이상민 10,690 이수민 13,080 이숙숙 28,480 이영진 21,550 홍정순 19,690 황의주,황연주 13,140

→ 포항

김정미 20,000 손창원 39,200 윤기옥 21,030 이미경 28,890 이원백 9,230 이준호 28,650 전병찬 12,250 최용근 36,850

| 거리 모금 현황 |

경주 1,237,850 광주 318,450 김천 322,600 대구 5,832,690 대전 1,494,940 동래 2,314,550 마산 4,664,830 목포 212,240 서울 12,294,391 울산 1,521,270 정읍 186,210 제천 554,930 포항 1,850,210 해운대 1,343,400

| 후원 물품 |

의료용 파스 -대 490개 중255개 이명숙
베이직하우스의류-24박스 800점 부산어린이 여개동무
의류 총 64점 염순덕
아동 의류 20점 정문선

| 기부금 |

동국대 김기림 결혼식 축의금 일부 북한어린이돕기로 기부

명단 확인란

2009년 4월 1일~2009년 5월 31일

5/16	감사합니다	30,000	5/25	김수연	5,000
5/4	감사합니다	5,000	4/27	김수연	5,000
4/3	감사합니다	5,000	5/22	김안옥	30,000
5/20	강미란	10,000	5/8	김익권	10,000
4/20	강미란	10,000	4/6	김익권	10,000
5/29	강불희	40,000	5/25	김연옥	10,000
4/29	강불희	40,000	4/27	김연옥	10,000
5/25	강세환	5,000	4/21	김영신보시	100,000
4/27	강세환	5,000	5/11	김영애	10,000
4/17	고수정	30,000	4/10	김영애	10,000
5/14	고인순	10,000	5/11	김예래	10,000
4/13	고인순	10,000	4/10	김예래	10,000
5/25	곽미미	10,000	5/4	김원태	10,000
4/27	곽미미	10,000	4/1	김원태	10,000
5/26	구미정	10,000	4/30	김원희	10,000
4/27	구미정	10,000	4/24	김문미	10,000
5/25	구영미	3,000	5/14	김은하	45,000
4/27	구영미	3,000	5/25	김재혁	10,000
4/16	권민수	30,000	5/15	김정순	20,000
4/28	권병주	100,000	4/15	김정순	20,000
5/11	권영경	30,000	5/4	김정미	5,000
4/10	권영경	30,000	4/2	김정미	5,000
4/20	권영미	2,000	5/25	김정숙	20,000
5/27	권혁준	10,000	4/24	김정숙	20,000
4/27	권혁준	10,000	5/29	김정희	30,000
5/11	금여	500,000	5/19	김정희	30,000
4/10	금여	500,000	5/25	김춘심	10,000
4/30	김갑순	5,000	4/27	김춘심	10,000
5/26	김계남	1,000	5/21	김태구	30,000
4/27	김계남	1,000	4/18	김태구	15,000
5/6	김기환	100,000	5/7	김태민	30,000
4/6	김기환	100,000	5/11	김현우	20,000
5/20	김길중	20,000	4/10	김현우	20,000
4/20	김길중	20,000	4/20	김희범	100,000
5/22	김남숙	350,000	5/6	김희자	10,000
5/4	김덕화	10,000	4/3	김희자	10,000
4/1	김덕화	10,000	4/12	김희진	15,000
5/27	김명지	30,000	5/25	깨장일동	50,000
4/23	김명지	30,000	5/4	꿈에도소원은통일10,000	
5/18	김미경	10,000	4/3	꿈에도소원은통일10,000	
5/25	김미정	10,000	5/4	남율사	100,000
5/25	김미현	10,000	5/4	남재환	20,000
5/8	김미현	303,090	4/2	남재환	20,000
4/24	김미경	10,000	5/15	남정옥	20,000
5/11	김보경	1,000,000	4/15	남정옥	20,000
4/13	김보경	1,000,000	5/29	남화정	20,000
5/12	김복순	10,000	4/18	노갑섭	50,000
4/6	김복순	10,000	5/11	노재성	10,000
5/11	김선옥	5,000	4/10	노재성	10,000
5/23	김소영	300,000	5/28	대구교대	47,000

09년 4월 1일부터 09년 5월 31일까지 은행으로 후원금을 주셨으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연말영수증이 발급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정보가 필요하니 꼭 연락바랍니다.(입금일, 이름, 금액)
문의전화 : 08-587-8992

4/30	대한불교조계	10,000	5/6	박홍태	50,000
5/30	통계	10,000	5/6	박화정	20,000
4/23	리정숙	10,000	4/6	박화정	20,000
5/25	류희연	5,000	5/22	반성호	10,000
4/27	류희연	5,000	5/11	반성호	10,000
5/28	마틸다리	10,000	4/24	박은초록별	500,000
5/25	문경고광희	50,000	4/27	배영숙	50,000
4/24	문상인	100,000	5/18	배인철	20,000
5/13	문순재	10,000	4/16	배인철	20,000
4/3	문순재	40,000	5/8	백경희	10,000
5/20	문송영	10,000	4/10	백경희	10,000
4/20	문송영	10,000	5/21	백운재	50,000
5/31	문용규	50,000	4/21	백운재	50,000
5/2	문용규	50,000	4/24	백형기	600,000
5/25	문희경	10,000	5/18	백혜원	10,000
4/27	문희경	10,000	5/6	백혜원	10,000
5/22	민미소	110,000	5/22	법원사	100,000
5/26	민병도	30,000	5/13	법웅사	58,870
4/27	민병도	30,000	5/11	변인환	55,000
5/22	박광민	50,000	5/2	변인환	500,000
5/3	박광민	50,000	5/19	북한돕기	50,000
5/20	박낙범	5,000	4/19	북한돕기	50,001
4/20	박낙범	5,000	5/15	생명의밥	20,000
5/28	박미란	40,000	5/18	서묘희	30,000
5/20	박미희	10,000	4/16	서묘희	30,000
4/20	박미희	10,000	5/4	서보원	10,000
5/29	박상기	10,000	4/16	서보원	10,000
4/29	박상기	10,000	5/6	서선영	30,000
5/4	박상아	2,000	4/6	서선영	30,000
4/1	박상아	2,000	5/6	서울남은살보시	103,000
5/29	박선영	10,000	5/25	서은라	10,000
4/29	박선영	10,000	4/27	서은라	10,000
4/18	박성심	10,000	4/30	서현주	30,000
4/15	박성심	40,000	5/20	설상일	100,000
5/8	박승권	200,000	4/16	설상일	100,000
4/24	박승권	200,000	4/10	설정숙	200,000
5/27	박영옥	100,000	5/25	성경연	20,000
5/20	박우돈	10,000	4/23	성경연	20,000
4/20	박우돈	10,000	5/13	성낙표	5,000
5/28	박은경	20,000	5/11	성불하	10,000
4/30	박은경	20,000	5/6	손승연	5,000
4/30	박정자	5,000	5/5	손영숙	20,000
4/2	박주원	10,000	4/4	손영숙	20,000
5/25	박지민	5,000	4/30	송우석	5,000
4/13	박지원	10,000	5/15	송현정	5,000
4/23	박지희	10,000	4/15	송현정	5,000
4/13	박한진	67,000	5/11	신미화	10,000
4/1	박한진	30,000	4/13	신미화	10,000
5/20	박해령	10,000	5/4	신비로운여인	20,000
4/20	박해령	10,000	4/1	신비로운여인	20,000

4/28	신연규	20,000	5/22	이성욱	10,000	4/16	전기우	10,000	4/30	최정희	50,000
5/4	신영희	20,000	4/22	이성욱	10,000	5/26	전소아	30,000	4/13	최정희	30,000
4/2	신영희	20,000	5/12	이수연	10,000	5/7	전우정	10,000	4/2	최정희	30,000
5/25	신용욱	10,000	5/22	이수진	10,000	4/7	전우정	10,000	5/29	최태연	100,000
4/27	신용욱	10,000	4/13	이수진	10,000	5/25	정경욱	10,000	4/30	최태연	100,000
5/4	신은경	10,000	4/23	이승호	50,000	4/27	정경욱	10,000	5/6	최홍선	20,000
4/6	신은경	10,000	5/21	이만용	10,000	5/1	정동순	30,000	4/28	편광태	10,000
4/30	신현정	10,000	4/21	이만용	10,000	4/1	정동순	30,000	4/28	하창익	100,000
5/6	심연숙	27,870	5/7	이연숙	10,000	5/26	정미경	10,000	5/7	학림사	100,000
5/14	쌍별고31	50,000	4/7	이연숙	10,000	4/27	정미경	10,000	5/20	한시연	50,000
5/25	안성삼	100,000	5/25	이영선	10,000	5/25	정신영	10,000	5/19	한대륙	15,000
5/22	안옥승	5,000	4/27	이영선	10,000	4/27	정신영	10,000	4/20	한대륙	15,000
4/27	안옥승	5,000	5/25	이영애	10,000	5/4	정연선	5,000	5/19	한만석	30,000
5/25	안혜숙	10,000	4/27	이영애	10,000	4/1	정연선	5,000	4/20	한만석	30,000
5/25	안혜숙	10,000	4/27	이은영	30,000	5/11	정연옥	50,000	5/16	한명기	50,000
4/27	안혜숙	10,000	5/4	이은희	20,000	5/8	정영란	50,000	4/17	한명기	50,000
4/27	안혜숙	10,000	4/1	이은희	20,000	4/10	정영란	50,000	5/21	한석기	10,000
4/30	양나라	10,000	5/15	이인식	10,000	5/4	정은선	10,000	5/5	한석기	10,000
5/18	엄경해	10,000	4/15	이인식	10,000	4/3	정은선	10,000	4/28	한의규	10,000
4/17	엄경해	10,000	5/20	이정욱	10,000	5/7	정재설	50,000	4/1	한의규	10,000
5/19	여영주	10,000	4/20	이정욱	10,000	4/16	정재은	30,000	5/25	한지예	20,000
4/16	여영주	10,000	5/23	이정희	248,000	5/7	정진관	50,000	4/27	한지예	20,000
5/20	연미경	5,000	5/12	이제민	10,000	4/13	정진관	60,000	4/21	해외송금	8,051,007
4/20	연미경	5,000	5/22	이주영	20,000	5/19	정광숙	5,000	4/30	허경자	10,000
5/11	오경희	5,000	4/22	이주영	20,000	4/20	정광숙	5,000	5/4	홍영길	10,000
4/10	오경희	5,000	4/30	이주철	10,000	5/15	정현아	10,000	4/1	홍영길	10,000
5/29	우경순	50,000	5/12	이지호	10,000	4/15	정현아	10,000	5/28	홍진숙	20,000
4/30	우경순	50,000	5/15	이춘례	30,000	5/23	정형길	20,000	5/26	황준성	20,000
5/6	유광호	15,000	4/15	이춘례	30,000	4/2	정혜정	50,000	4/26	회비입금	100,000
4/6	유광호	15,000	4/14	이현주	120,000	5/15	조경희	100,000	5/18	후원금	10,000
5/14	유미향	50,000	4/13	이현주	102,620	5/15	조명순	10,000	4/20	후원금	10,000
5/20	유상혁	10,000	4/10	이혜옥	10,000	4/15	조명순	10,000	4/24	최운연하천	500,000
4/20	유상혁	10,000	5/11	이화순	20,000	4/3	조미옥	10,000			
5/6	유지일	60,000	4/10	이화순	20,000	4/13	조옥현	100,000			
4/9	윤동현	100,000	5/4	익명	10,000	5/8	지동현	80,000			
5/25	이경숙	10,000	4/30	임규리	10,000	4/7	지현정	100,000			
5/25	이경희	10,000	4/30	임규원	10,000	5/25	차길호	10,000			
5/4	이남숙	10,000	5/12	임성철	10,000	4/27	차길호	10,000			
4/1	이남숙	10,000	4/30	임은주	20,000	4/17	채진연	10,000			
5/25	이남지	20,000	4/30	임창숙	20,000	4/10	최덕희	5,000			
4/27	이남지	20,000	5/5	임현철	30,000	5/11	최명임	5,000			
5/25	이동훈	20,000	5/7	장경숙	100,000	4/10	최명임	5,000			
4/24	이동훈	20,000	5/4	장경숙	30,000	4/13	최성정	30,000			
5/8	이명희	50,000	4/3	장경숙	30,000	5/19	최성진(아폴타메탈트				
5/25	이미숙	10,000	5/27	장영순	10,000		70,000				
4/7	이미순	1,000,000	4/27	장영순	10,000	4/2	최원형(김영준)	33,000			
4/28	이민영	10,000	4/15	장현린	10,000	4/12	최유진	50,000			
4/24	이민주	700,000	5/4	장현선	20,000	5/7	최은아	5,000			
4/24	이선재	700,000	4/1	장현선	20,000	4/6	최은아	5,000			
4/30	이선희	50,000	5/18	전기우	10,000	4/2	최재마로	10,00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자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셨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2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간급구조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